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한 교육적 이해

정은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강아름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 《요약》

최근 ADHD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ADHD가 신경학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ADHD가 매우 가치 있는 인류의 자연사적 산물('에디슨 유전자')이라는 주장이 흥미를 끌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작금의 우생학적 흐름, 즉 ADHD는 부적절한 유전인자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에 쓸려가 버릴지도 모르는 지금까지의 ADHD 이해에 대해 의미 있는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에 ADHD에 대한 생물학적 환원주의를 벗어나 사회구성적으로 접근해 보고 동시에 치료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고민해 보았다. 연구결과 ADHD는 불필요하거나 열등한 인간 특질의 문제가 아니며 인간이 처한 발달조건 속에서 각기 개별적 성숙을 꾀하는 과정을 통해 계발되고 형성된 사회적 실존이며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교육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제어 : ADHD, 우생학, 에디슨 유전자, 호기심, 대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 사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종종 “방법론적 결함과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몇몇의 연구들은 오히려 ADHD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Nylund, 2008: 59). 예를 들어 ADHD와 창의성의 동시 발생을 보여 주는 연구결과들(Cramond, 1995; Palladino, 1999; Hartmann, 2005; Honos-Webb, 2007)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의 재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질병과 결함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ADHD를 이해하려고 한다(Nylund, 2008: 74).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의 생물정신의학(biopsychiatry)적 풍토를 등에 업고 ADHD로 진단된 아동과 성인은 미국의 경우 1990년 이래 90만 명에서 500만 명에 이르는 극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진단남용 결과, 같은 기간 리탈린 판매는 700퍼센트 가량 증가하였으며(Nylund, 2008: 19, 46, 49 참고), 우리나라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 속에 현재 처해 있다(구체적인 예는 메디팜스투데이 <http://www.pharmstoday.com>를 참고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흐름과는 달리 ADHD가 신경학적 결합에 의한다는 연구는 실패했으며(Zametkin & others, 1993) 결과적으로 ADHD가 생물학적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는 없다는(Breggin, 1998; Diller, 1998; Nylund, 2008: 59-61), 즉 모두가 합의할 정도의 뚜렷한 신경학적 결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현대 과학의 보고이다. 쉬운 예로 ADHD와 관련된 유전자로 밝혀진 DRD4 7R 유전자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밝혀 낸 사실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 중 절반 정도만 이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게 말해 “ADHD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절반 정도는 유전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주의력결핍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Hartmann, 2005: 131). 이렇듯 ADHD 아동과 ADHD 성향의 아동이 별다른 구별없이 명명(命名)되고 있는 진단현실에 대해 ADHD 당사자인 R. Jergen 교수는 “ADHD는 ‘걸리거나’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증상이 상황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과잉행동이 됐다든지 부주의해진다든지, 충동적이 된다든지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Jergen, 2005: 52). 따라서 ADHD 진단이후의 각기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ADHD 진단의 남용 즉 과잉진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리탈린을 중심으로 한 ADHD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적인 약물 치료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21세기 또 하나의 우생학적 접근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생학적 관점은 장애(인)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2차 대전시 독일의 장애인 대학살 경험을 뼈아프게 겪으면서 이에 대한 슬한 비판이 있어 왔다. 하지만 그 발상은 그치지 않고 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생활 속에 침투되고 있는데 본 논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신중하고 엄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아주 어린 유아들도 ADHD 진단과 함께 리탈린 처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아울러 Diller, 1998; Nylund, 2008: 54 참고) 이것은 사회가 그에 ‘적합한’ 인간(만)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질병 및 장애 진단의 표준적 준거가 되는 DSM의 기준들이 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 몸에 대한 이러한 사회의 통제욕구는 보다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즉 ‘질병’이나 ‘장애’ 자체에 대한 고민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의해 준거가 바뀌어 왔다는 의미이다(Caplan, 1995; Kirk & Kutchins, 1992 참고). 가까운 예로 “DSM은 1974년까지 동성애를 장애로 분류했었는데, 게이와 레즈비언 옹호자들의 압력으로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게 되었다”(Nylund, 2008: 69). 즉 ADHD 역시도 ADHD를 ‘장애’라고 여기는 사람들(ADHD 용

호자)에 의해 그 실체를 부여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미국 내 널리 퍼져있는 ADHD 지원모임인 CHADD(children and Adults with Attention Deficit Disorder)은 ADHD를 위한 가장 좋은 치료는 암페타민 즉 리탈린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리탈린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 공식적으로는 Ciba-Geigy)에 의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같은 책: 19, 43-44 참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의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ADHD가 신경학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환원주의가 지배적인 작금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들을 무책임하게 병화(病化)시키거나 물화(物化)시키지 않을 수 있는 인간적 이해는 어떻게 가능할까? 본 연구는 이에 대해 먼저 Palladino의 ‘에디슨 유전자’(Hartmann은 이를 ‘농경사회에 사는 사냥꾼’이라고 표현한다)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

Palladino(1999)와 Hartmann(2005)는 ‘에디슨 유전자’ 혹은 ‘사냥꾼 유전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ADHD를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인간 종의 적응에 기여해온 유전자로서 유전적 다양성과 인간 전체의 참된 삶을 위해 존재하는 유전자”임을 밝히고 있다(Palladino; Hartmann, 2005: 5). 간략히 설명해 “교사나 정신과 의사들이 소위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과거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었고, 현대 우리의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고안해 낸 사람들에 속하며 “미래 인류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인 것이다(같은 책: 23). 이처럼 ADHD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입장들은 지금의 현실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관점은 겉으로 덜렁거리고 괘괄한 장난꾸러기, 건망증 심한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 사회가 행동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그들을 소외시키고 문제시하며 낙인찍는 일방적 이해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방적인 상황과 관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런 아이들’은 무엇이든 쉽게 잊어버리는 특성을 가진다는 관념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폭력적인 현실이다(이 아이들에 대한 무변별한 언행들은 예를 들어 “너 미친 거 아니니?”, “너만 사라지고 없으면 주위 사람 모두가 편할 텐데!” 등).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ADHD에 대한 무지 및 ADHD와 ADHD 아동을 구별없이 인식하는 비윤리적 태도에 기인하는 반교육적 행동일 따름이다. 이에 ADHD 당사자인 R. Jergen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 머리에서 메아리칠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숙제를 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잊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은 잊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진 상처가 되는 말은 잊지 않는다. 결국, 그 말은 우리 머릿속에 남겨져 영원히 우리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Jergen, 2005: 312-313).

타인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등 어린 시절에 경험한 심각한 스트레스, 특히 성적 학대가 오히려 주의력 결핍 증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은 ADHD 그 자체가 아니라 ADHD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이해과정을 통해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Hartmann, 2005: 134, 263). 따라서 직접적인 모욕이나 간접적이고 세련된 모욕(예: DSM-IV의 용어)으로 인해 자신을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문화 속에서 이제는 이 아이들의 인격을 지켜주어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 속에서 ADHD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이해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ADHD가 과잉 진단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에디슨 유전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고자 하는데(II-1) 이와 함께 사회구성적 접근도 시도할 것이다(II-2). 그리고 ADHD 치료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약물중심의 ADHD 치료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하며(III-1) 끝으로 ADHD 아동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구상하고 또 제안하려고 한다(III-2).

ADHD 아동 연구에 오래도록 몸 담아온 Palladino 박사가 보고하고 있는 장기간에 걸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아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그 아이를 믿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 사람 정도라도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고 한다(Hartmann, 2005: 12 재인용). 즉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아이를 믿을 때” 비로소 “아이는 자신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을 바꾸어 설명하자면, 그 어떤 ADHD 아동도 스스로 ADHD라는 사회-병리적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우선적으로 외부에서, 관계를 통해 덧입혀진 것이며 따라서 ADHD라는 것이 그 해당아동과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한다면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ADHD 아동이 아니라 그렇게 이름붙인 ‘우리’라는 뜻이다(Palladino; Hartmann, 2005: 12).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변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막연한 이해심이나 ADHD에 대한 전문적 이론이 아니라, 그 아동을, 그의 ADHD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것, 즉 그 욕구를 우리 스스로 일깨우는 작업이다. 본 연구 또한 바로 이러한 작업 선상에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ADHD를 소중한 인간사적 산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교육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II. ADHD에 대한 비판적 이해

### 1. ADHD와 ‘에디슨 유전자’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생물학적·사회적 형태를 획득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인간의 문화 역시 이러한 생물학적·사회적 변화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통해 오랜 시간을 걸쳐 진화해왔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문화의 형태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발달한 삶의 방식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Lee와 DeVore(1968)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삶을 영위했던 모든 인간의 90%는 사냥꾼과 채집자로서 살았으며, 6%는 단순한 농경문화에서, 나머지 4%는 공업 사회에서 살았다”고 한다 (Breger, 2003: 87 참고). 이처럼 수렵 채집 문화는 농경·공업 사회의 발달로 인해 이제 소멸되었지만 인류사에 있어 오랜 기간 “성공적인 적응”을 보여 주었다(같은 책: 87). 인간이 오랜 진화의 산물임을 염두에 둔다면 수렵 채집 사회에 대한 이러한 적응 행동에 대한 검토는 인간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또한 ADHD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Hartmann은 초기문화에서 아주 유용했던 산만성(distractibility), 충동성(impulsivity), 위험 추구성(risk-taking)과 같은 행동양식이 수렵 채집 시대 이후 일정한 시간에 맞춰 꾸준히 노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농경·공업 사회의 문화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선택받지 못하고 단지 잠재력으로만 남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Hartmann, 2005: 31).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 가지 특질은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장애라는 관점에서 ADHD 진단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밀림이나 숲 속에서(즉 사냥 장면) 중요한 “상황 파악능력”(같은 책: 66)으로 작용했던 “훑어보는 특성(scanning)”은 이제 교실에서 산만한 성향이라고 여겨지면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같은 책: 33). 따라서 앞장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Hartmann과 Palladino가 이러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성향에 대해 ADHD라는 용어 대신 ‘에디슨 성향’ 혹은 ‘에디슨 유전자’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같은 책: 25). 이들은 ADHD 유전자에 대해 시대를 거슬러 추적한 연구를 통해 “이 유전자가 탐험과 창안의 원동력이 되는 호기심 유전자”라는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같은 책: 49).

코넬 대학교의 스테판 J. 세시와 제이니 티쉬먼의 연구에 따르면(이하 Hartmann, 2005: 60-61 참고) ADHD 아동의 행동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고형태에서 비롯된다. 과잉행동을 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일반 아동과는 달리 과업과 관계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는데(산만하게 눈길을 돌리거나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등의 행동) ADHD 성향을 지닌 아이들은 이렇듯 그들의 ‘산만함’ 덕분에 오히려 주위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지각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다. 또한 보니 크레이몬드는 ADHD 아동들이 “감각적 자극을 변환시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보다 산만함을 겪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와 같은 무의식적이고 분기적인 관념 작용”이 “분기적 사유에 대한 시험에서 보다 창의성 넘치는 반응을 드러내 보이는 큰 이유처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연구들은 ADHD 아동의 사고형태의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같은 책: 59-60 참고). 따라서 ADHD 아동의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과잉행동을 하는 아동의 과업 관련 기억은 과업과 관련이 없는 자극 때문에 저하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하겠다(같은 책: 61). 즉 일반적으로 ADHD 아동이 자신의 산만한 행동으로 인해 “무엇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일반아동에 비해 두 가지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같은 책: 61). 또한 더 나아가 “ADHD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도 자신이 흥분이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에는 주의를 집중할 수 있고, 나아가 오랜 시간, 주의를 집중할 수도 있다. 이것을 과도한 집중이라는 뜻에서 하이퍼포커싱(hyperfocusing)”이라고 부르는데(같은 책: 33), O. Sacks가 보고하고 있는 뚜렛증후군을 가진 외과의사의 경우에서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난다(자세한 내용은 Sacks, 2005: 129-169 참고).

한편 1990년대에 진행된 연구를 통해 DRD4라는 이름의 유전자 과잉행동, 감각 추구, 호기심과 같은 ADHD의 행동과 큰 관련이 있음을 주장되었다. DR이란 도파민 리셉터(dopamine receptor)의 머리글자로서 이 유전자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감각적 자극에 대한 인간의 시상(視床)과 대뇌 피질의 감수성을 관장하는 화학물질)의 생성 분비되는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즉 “유전적으로 도파민 생성 분비량이 적은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자극을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유전적으로 도파민 생성 분비량이 많은 사람은 수동적이고 감각 추구나 새로운 것을 찾는 행동”을 적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다(Hartmann, 2005: 80-81).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생물학적 환원주의가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가 곧 생물학적 질병의 요인이 된다면서 ADHD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병리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와 문화와 개인의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이해하는 현대과학의 이러한 기계적인 해석은 현실에서 많은 폐해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폐해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도파민 생성 분비량의 차이와 그에 따른 행동의 다름은 결코 우월성 혹은 유용성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생존에 가장 적합한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하는 문제이다(같은 책: 80-81). 이에 브루스 D. 페리는 “두뇌 발달의 연속적이며 함목적적인 속성이 놀라운 정도로 탄력적 적응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 개인이 지닌 두뇌의 독특한 유전적 잠재성 안에서 두뇌는 개인이 성장하는 환경의 ‘유형’에 적합한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린이는 자신이 성장한 환경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이가 성장하는 환경이 위협, 혼란, 불확실성, 두려움, 정신적 상처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두뇌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반응하는 신경계의 발전을 저지하는 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Hartmann, 2005: 97 재인용).

이처럼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나간다. 인간의 뇌는 파충류 뇌, 포유류 뇌(파충류 뇌의 발달이 끝나면서 임신 후 3-4개월 때쯤 두 번째 생성되는 뇌 구조로서 정서를 관장하며 심장과 관련되어 있다), 네오코텍스(‘신 뇌’라고 불리는 두뇌에서 가장 발달한 최근의 진화의 산물로 형성된 두뇌 구조)의 좌뇌와 우뇌, 그리고 전두엽의 순서로 형성해 나간다(Hartmann, 2005: 93). 이러한 과정에서 뇌의 신경계는 모든 조직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백만 개에 달하는 여분의 뇌 신경을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거하면서 자기가 살아갈 환경에 적응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같은 책: 90-92). 즉 아동의 두뇌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동이 처한 환경이 계속적으로 적대적이고 열악한 환경이라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계의 가지치기는 ‘방어 본능’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담당하는 파충류 뇌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서를 관장하는 포유류 뇌와 네오코텍스를 집중적으로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아남기에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 보다는 위험한 자극에 더 예민하고 빠르게 반응하게 되어 생사의 위기를 좀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같은 책: 95-96).

이러한 관점에서 ADHD 성향의 원인이 전두엽과 관련된 기능(과업과 관련된 기억, 예견, 계획, 시간에 대한 감각, 충동 억제력 등은 모두 두뇌의 실행 및 통제를 담당)의 결함이라는 주장은 분명히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전두엽 기능의 결함’이라는 표현을 앞서 언급한 두뇌의 사회성과 가소성(plasticity: 두뇌 구조는 바뀌고 발달할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신경학의 용어)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이는 단지 전두엽의 발달이 일반적인 발달 속도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출생 전부터 20대 초반까지 계속 발달하면서 뇌의 구조를 완성해 나가는 전두엽의 발달의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감안했을 때(Hartmann, 2005: 100-101; 사회적 뇌에 관해서는 Goleman, 2006, 정은, 2008a 참고) 에디슨 성향의 학생들이 예를 들어 성인이 되어 대학 과정에서 뒤늦게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은 이상할 것이 없다(Palladino; Hartmann, 2005: 11). 이와 관련하여 또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전두엽의 손상(혹은 그로 인한 자제력의 부족)은 실질적으로 ADHD 아동의 학습 방법과 정반대의 학습형태를 요구하는 현행 교육제도로 인한 정서적 상처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같은 책: 118).

인간의 문화가 인간의 두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들은 ADHD 아동의 안전부절못함, 과잉행동,

부주의, 주의산만 등과 같은 행동이 ADHD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환경적 요인에 형성되고 있음을 점차 명확히 하고 있다(Breggin, 1998; Nylund, 2008: 67). 정리하자면, 산만하고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로 부터 끊임 없이 벌을 받고, 비판을 받는 등 두려움과 걱정을 야기시키는 환경은 ADHD 아동들에게 자극에 더 예민하고 빠르게 반응하기 위한 “투쟁과 방어라는 생존 기능” 발달만을 최소한 보장하고 있을 따름이다(Hartmann, 2005: 120). 달리 표현해 현대의 문화는 그들의 잠재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발달에 있어서 안전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상기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ADHD 아동에게 제안되어야 평등한 발달조건은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들이 ADHD에 대한 결합적 인식에서 벗어나 인류 공통의 유산(‘에디슨 유전자!’)이라는 미래지향적 수용을 성취해 내는 일일 것이다.

## 2. 사회구성적 접근

본 절에서는 앞 절의 내용과 연결해 ADHD 실체 형성에 대한 사회구성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사회구성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ADHD 아동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을 통해 부정적으로 고착되고 승인되어 버리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내용에 앞서 ADHD 당사자인 Jergen 교수의 회고를 먼저 인용하고자 한다.

“화가 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사회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ADHD가 아닌 사람들은 예의 없이 행동해도 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면 그건 ‘선의의 농담’이라고 여긴다. 내가 그러면, 곧 ‘부적절한’ 행동이 되고 (...)”(Jergen, 2005: 196; 이와 관계해 보다 다양한 경우는 같은 책 203-204 참고).

ADHD 아동의 행동을 부모나 교사들은 그저 ‘장애’의 특성으로 객체화하여 이해하게 되면서 그 이면의 창의성과 같은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더불어 전문가들 역시도 ADHD 아동에 대해 직접적인 말로 모욕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DSM-IV의 용어나 다양한 심리학적 용어들을 통해 고도로 세련된 담화를 구성하고 이것으로 꼬리표를 붙이곤 한다(White & Epston, 1990: 10). 아동에 대해 단 한마디의 말로 요약하고자 하는 이러한 유형의 기술들에 대해 White와 Epston은 “내재화된 담화(internalized discourses)”라고 명명한다(Nylund, 2008: 119-120). 그런데 사회적으로 만연한 이러한 내재화된 담화는 의학적 결합과 행동상의 차이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는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밝힌바 있듯이 인간에 대한 어떠한 생물학적 환원주의 또는 유전적 결정론이 절대 수용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ADHD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ADHD를 “사회적 구

조, 즉 현재의 사회적 환경과 아동, 가족, 학교에 관한 공식적인 담화를 통해 발생한 특정 행동 혹은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Nylund의 관점은 매우 유익하다(같은 책: 23). 아동이 처한 사회의 구조에 따라 장애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러한 관점은 ADHD가 못 일반 행동들과 다르게 보여주는 ‘차이’가 다른 시대와 장소였다면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특질임을 보여준다(Hartmann, 2005: 125). 이렇듯 ADHD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해 사람과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차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학교제도 혹은 학교문화의 획일성은 우리사회가 ADHD에 대해 갖는 태도 형성에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ADHD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한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러한 ADHD의 사고 형태를 Palladino는 단일사고에 집중·몰두하는 수렴적 사고(이러한 사고는 일정한 사고와 무관한 아이디어나 지각의 충동을 저지한다)와 구별되는 확산적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한 가지 사고에서 더 많은 사고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Palladino, 1999: 13). 그러나 이러한 사고형태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은 현재 사회구성원들 대다수가 ‘당연시’여기는 행동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비정상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더구나 수렴적 사고(만)를 ‘우월한’ 사고형식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 ADHD 아동의 확산적 사고는 단지 산만하거나 불성실함으로 치부되기 일수이다.

현재의 학교교육 형태는 일정한 시간동안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만에 과목을 바꾸는 유일한 방식에 통해 아동들에게 수렴적 사고의 학습형태만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문화에 속한다. 즉 탁월한 발명가나 기업가가 될 특징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의 두뇌 구조와는 달리 “조직화된 환경 속에서 순응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지배적인 학교문화인 것이다(Hartmann, 2005: 28-29, 199 참고).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서 주위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ADHD 아동들의 학습형태는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교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ADHD 아동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ADHD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되는데(같은 책: 141), Hartmann은 이런 악순환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라. 당신이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을 동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때문에 당신을 조롱한다. 상사는 그 때문에 늘 주의를 두고 가족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경찰이 와서 잡아다가 다시 그 일을 하게 한다. 당신이 저항을 하자 경찰은 당신이 반항적인 성격이 있다면서 그런 성질 머리를 고치는 약이라고 하며 억지로 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그

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아니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몇 달을 산다면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몇 년을 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Hartmann, 2005: 121).

에디슨 유전자를 지닌 ADHD 아동들이 소위 상식적이라고 하는 교육 방식과 시험 방식에 억지로 적응해야 하는 위와 같은 문화적 조건 하에 처하게 되면 그들의 두뇌는 이상적으로 발달 할 수 있었던 경로를 포기하고 그와 정반대로 단지 환경에 대한 방어를 위한 발달경로만을 중점적으로 선택하게 된다(Hartmann, 2005: 120). ADHD의 학습 형태 혹은 뇌 구조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정상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뇌 구조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례”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학교제도를 비롯한 사회문화는 ADHD 성향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발달 조건으로 실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aul Elliott, M.D.; Gallagher, 1999: 1; Nylund, 2008: 202 재인용). 아울러 이러한 전면적인 방식이 곧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ADHD 아동의 능력과 재능의 발현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작업은 필연적으로 학교와 같은 지배적인 문화로부터 경험한 부정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한 인간의 능력과 재능 즉 인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적인 표현(예: ‘반항적이다’, ‘산만하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에서 비롯되는 “특정 문제의 정체성”으로부터 “아동이 선호하는 정체성을 재생 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포스트모던) 치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Nylund, 2008: 199-200). Jantzen(1997)이 장애진단방법론에 있어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재역사화” 작업처럼(정은, 2008b 참고) 결함-내포적 (deficit-asturated)이고 병리적인 꼬리표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재구성 작업은 곧 “아동과 문제를 분리”하는 “문제의 외재화 (externalizing the problem)” 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 될 수 있을 것이다(Nylund, 2008: 140-141). 이것은 예를 들어 아동이 자신의 ADHD적 행동에 대해 장애(즉 잘못된 혹은 부정)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이 쉽게 지루함을 느껴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싶어 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Jergen, 2005: 115, 304, 260 참고). 결론적으로 아동은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기대를 받느냐’ 혹은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 따라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또한 그에 따라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발달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수용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 본 절 및 본 장 전체를 통해 다룬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 명확해졌겠지만 ADHD 아동들의 귀중한 가능성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생산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획일적 문화 조건에 대해 ADHD 아동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발달(학습, 생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예: Jergen, 2005 참고) 전폭적인 사회문화적 지원이 절

실하다.

### III. ADHD 치료에 대한 교육적 이해 재구성

#### 1. 약물중심의 ADHD 치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앞 장에서 논의를 통해 ADHD 아동의 행동상의 차이 혹은 유전적·생물학적 차이는 유전자·사회·개인 간의 복잡한 상호관련 속에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 획득된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ADHD의 이러한 ‘차이’에 대한 생물학적 환원주의 시각은 ADHD와 관련한 현실에서 지배적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약물을 통한(혹은 동반한) 치료 요구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ADHD 아동들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행위가 지금처럼 여과 없이 진행되고 정당화되어도 되는 것일까?

‘ADHD는 도파민 결핍에 원인이 되어 나타나므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식의 전문가들의 해석은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제인 암페타민, 메탐피타민, 리탈린 등을 사용하는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치료과정에서 만약 ADHD 아동이 리탈린이나 다른 약물들로 인해 그 증상이 완화되었다면 ADHD 아동이 생물학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믿음의 순환과정과 관련하여 소아과 의사 R. Diller(1998: 10)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약물의 복용으로 어떤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말해 주지는 않는다. 아스피린이 두통을 완화시켰다고 해서, 두통이 아스피린 결핍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Nylund, 2008: 63 재인용).

하지만 실제로 “지난 몇 십년 사이에 제약 회사들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연구들”은 “리탈린 제제가 ADHD 증세를 지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결론짓고 약물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보증하려고 한다(Hartmann, 2005: 231).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약회사, 학교 그리고 다른 정신건강 센터들은 이러한 약물이 장애에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하면서 ADHD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약물을 통한 치료과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Nylund, 2008: 22). 그러나 ADHD와 관련하여 약물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 약물치료과정에서 암페타민의 복용과 장기적 뇌세포 손상관계나(Hartmann, 2005: 147)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억제제를 위한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중

추진경자극제가 틱을 강화시킨다는 부작용에 대해 현대의 의학은 무지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Scholz & Rotenberger, 2006: 199).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받은 아이들과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던 다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두 부류의 행동 특성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 약물치료가 유독 ADHD를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Hartmann, 2005: 148).

이처럼 상반되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생각해봤을 때 리탈린의 효과를 보장하는 “ADHD-리탈린 마케팅 캠페인”(Nylund, 2008: 88)이나 다름없는 많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사실상 “장기간 리탈린을 복용할 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artmann, 2005: 232). 즉 리탈린을 생산하는 회사마저 리탈린이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약물의 장기 복용으로 인한 아동의 뇌 손상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과소평가 하거나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Breggin, 1998: 99; Nylund, 2008: 76 재인용).

이러한 약물치료과정에서의 부작용 문제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흔히 약물치료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아동의 행동변화에 대한 비교육적 인식이다. ADHD와 관련한 약물치료는 이제껏 상반된 연구결과를 통해 찬반양론이 분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약물사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약물치료의 효과의 이면에는 단지 산만한 아동들의 행동의 문제들을 약물의 힘에 의해 억제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Breggin, 1998: 99; Nylund, 2008: 45 재인용). 또한 약물의 복용으로 인해 아동의 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효과가 학업 성취도 향상과는 궁극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더불어 강조되어야 한다(Hartmann, 2005: 230-231; 아울러 Jergen, 2005, Nylund, 2008 참고). 약물을 복용했을 때 아동이 차분히 앉아서 학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행동은 약물로 인해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Nylund, 2008: 75). 다시 말해 리탈린과 같은 약물의 복용의 효과는 아이를 차분하게 하여 그동안 골칫덩어리로 여겨지던 아동을 교사와 부모가 다루기 쉬운, 즉 “사회적으로 억제된 순응자로 만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Breggin, 1998, 99; Nylund, 2008: 45 재인용). 이렇듯 ADHD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현상이며 이런 상황에서 약물 치료란 사실 아동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의 기대(ADHD 성향의 억제)에 부응한 부차적 요구였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만 한다. 또한 ADHD 아동을 소위 ‘정상적’인 아동과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어른들의 욕구가 만족되는 동안 ADHD 아동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방법이나 행동방법을 발견하도록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몹시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산만한 성향, 확산적 사고형태가 앓을 구성하는 사고형태의 특수성임을 간과한 방법들 즉 “약물에 의해서, 체벌에 의해서, 학생을 단지 암전히 앉아 있게 하기 위한”

각기 방법들을 탈피하는 것은 ADHD 치료현실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Jergen, 2005: 319).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문가(특히 의사)에 의한 이러한 약물 중심 치료가 ADHD 아동 부모들의 양육능력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흔히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견지에서 약물복용과 제안과 같은 일방적인 단일 치료 경로의 제안들을 ADHD 아동 부모들에게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마치 “ADHD 아동을 양육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게 하며 동시에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지식을 과소평가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Nylund, 2008: 76, 79-80). 연구자의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경우들을 살펴보면 소위 전문가의 제안하는 양육에 대한 이러한 기계적인 접근 방법은 부모로서의 아이에 대한 직관력 발달을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이 비일관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많다(아울러 Nylund, 2008: 81 참고). 이처럼 전문가, 가족 그리고 아동 사이의 “힘의 불균형”(Nylund, 2008: 76)에서 비롯되는 모든 치료과정의 심리적인 영향은 ADHD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약물치료와 같은 전문가의 제안에 의존하게끔 만들어 결과적으로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ADHD 진단은 - 특히 이것이 약물치료와 병행될 때 - 부모뿐 아니라 아동 스스로도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예: “나는 ADHD라서 원래 이렇대”, “우리 애는 ADHD라서 딱히 다른 개선방법이 없대요, 약으로 치료하면서 그때그때 조절하는 게 최선이래요...”). 이처럼 개별 아동에 대해 구체적인 삶의 형태까지 결정하게 하는 이러한 획일적인 치료의 제안, 더 나아가 암묵적인 강압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21세기 새로운 우생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략하게 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 ADHD 아동에 대한 교육적 책무

앞서 ADHD 아동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ADHD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는데(Hartmann: II-2 참고) Palladino(1999) 역시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ADHD에 대한 기존의 기계적인 이해를 넘어선 새로운 교육적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다.

아동의 두뇌발달의 관련하여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그 시간들이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고 두뇌 활동이 왕성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학교가 아이들의 두뇌형성과 뇌신경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인할 방법이 없다”(Hartmann, 2005: 116). 인간의 두뇌 발달은 “다른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세계와 접하고 놀면서 신경들이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Hartmann: 160). 즉 놀이는 아동

이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학습형태가 된다(같은 책: 150). 그러나 지금의 학교문화는 어린 학생들에게 “종이 울릴 때 시작하는 법”을 요구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우도록 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같은 책: 240). 이러한 학교문화는 놀이와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뇌가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같은 책: 150-151).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신체를 사용해 마음껏 놀지 못하고 그와는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 얽전히 앉아서 있는 것을 학습의 전제조건 혹은 학습능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학교문화는 아동(ADHD 아동 뿐 아니라 일반아동 모두)의 두뇌발달에 저해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학교문화에서 ADHD 아동은 적응을 위해 변화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하는데 이러한 통제행위를 우리는 쉽게 교육적 행위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교육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행동통제는 아이의 표현된 능력 및 잠재력, 즉 호기심이나 창의성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한 호기심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자리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논의한 ADHD 아동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과정은 지금과 같은 ADHD 아동들의 등장이 오히려 학교가 진정한 삶의 생산소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삶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호기심’이 바로 아이들 그리고 ADHD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삶’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호기심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인식론적인 호기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Freire(2007)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먼저 Freire는 호기심을 “모든 인간 생명력의 특징”(Freire, 2007: 45)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적 성장은 “양식(good sense)을 훈련함으로써” 가능한데, 본래 호기심이 이러한 양식의 ‘몸체’이다(같은 책, 2007: 72).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는 인간의 사고를 크게 순진한 사고와 비판적 사고로 나누고 있는데 이 둘 모두 그 발생지가 호기심임을 강조한다(같은 책: 45). 호기심은 발휘할수록 더욱 비판적인 호기심이 되고, 호기심의 대상과 관련해 생각해보자면 방법론적으로 엄격한 호기심이 된다. 즉 자발적인 호기심이 강화되고 엄격해질수록 보다 인식론적인 호기심으로 탈바꿈해간다는 것이다(같은 책: 104). 그런 의미에서 모든 아동들은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비교하고, 의심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조직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더욱 유효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아울러 양식은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된다(같은 책: 72-73). 이처럼 삶에 대한 탐구과정을 유발하는 호기심은 “생명현상에 고유한 한계들을 뛰어넘어 점차 지식 생산의 토대와 기초”가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호기심은 그 자체로 지식이다(같은 책: 65). 여기에서 지식

이란 여기서 ‘백과사전적 지식’(Gramsci; Giroux, 2003: 353-354 재인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인식활동의 내용이자 결과를 의미한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로 아직 만들지 않은 세상에 대면하여 우리 자신이 만든 무엇인가를 그 세계에 포함시키기 위해 끝없이 안달하며 움직이는 호기심은 곧바로 창조성과 연결이 된다(Freire, 2007: 36).

앞서 호기심은 “모든 인간 생명력의 특징”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바꾸어 설명해 “호기심을 제대로 발휘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권리”라는 뜻이다(같은 책: 45, 100 참고). 이와 관련하여 Freire는 “다른 사람”의 호기심 표현을 부정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는 없다”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같은 책: 101). 이러한 관점에서 ADHD 아동들의 호기심에 대한 흔한 비판, 즉 ‘호기심만 있지 창의성은 없다’, ‘창의적이지는 않고 산만하기만 하다’는 식의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재고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창의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 제대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의 창의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언뜻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ADHD 아동의 산만함이 창의성이 넘치는 호기심의 표현양식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대과학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II장 1절 참조) ADHD 아동에게서 창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만함, 다시 말해 주위 환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각하려는 호기심의 표현에 대해 부정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음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아울러 Freire는 교육의 맥락에서 “배우는 이의 호기심을 질식시키는 권위주의적 혹은 온정주의적 태도의 지배를 받는 교사”는 마침내 자신의 호기심마저도 질식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같은 책: 100). 즉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획일화시키는 학교문화는 호기심을 통해 탐구하도록 하는 아동은 물론 교사에게도 자발성을 저해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강요하고 있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폐쇄적인 학교문화의 부정적인 순환과정에 고리를 끊고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아동과 교사 모두 자신의 인식론적 호기심을 최대한 발휘할 때 가능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ADHD(아동)를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를 ‘내’가, ‘학교’(교사)가 일깨우고 성취할 때 이들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ADHD 아동의 호기심의 표현에 대해 침묵을 요구하는 지금의 학교환경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그들의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Nylund, 2008: 277).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단지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루하고 무익할 수도 있는 단순한 질문을 주고받는, 즉 “단지 대화하는 척하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호기심에 가득 차 질문하는 것이 상호 간의 존재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Freire, 2007: 102; 이와 관계해서는 아울러 Rosenberg의 ‘비폭력 대화’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 재차 강조하건대 - “호기심은 대상에 관한 앞을 참여하여 그 앞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Freire, 2007: 81). ‘단지 대화하는 척하는

수동적 태도'의 간단한 예로 여기서 우리는 '유도 질문'에 대해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형태의 질문들은 '유도 질문'이다(대부분의 시험문제, 테스트 문항들도 내용적으로 이에 속할 것이다). 즉 질문자가 피질문자에게 정말 궁금한 것을 묻는 것(=개방적이고 호기심에 가득 찬 질문)이 아니라, 질문자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소위 '정답'을 피질문자가 알아내게끔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 피질문자가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단지 그 유무를 밝히려고 하는 질문들이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교육받아 왔다. 즉 정말 궁금해서 무언가를 묻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Freie도 이를 강조해 지적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제안되었던 솔한 질문들은 대부분 유도 질문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의 질문 경험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뿐 아니라)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의 주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응답 내지 직관이 '틀리면'(=정답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맨 먼저 하게 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산만하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대답하기 일췌인 ADHD 아동들에게 있어서 이런 식의 잦은 유도 질문들(예를 들어, "O가 뭐야? 대답해 볼래? ... 너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니? O가 뭐라고 생각해?")은 대화 상황을 더욱 나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사와 부모들은 이러한 자신의 '대화하는 척하는 수동적 태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DHD 아동들이 부응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궁지로 내몰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앎'의 과정을 폐쇄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바꾸어 말해 진정한, 열려있는 호기심 없이 진행되는 대화는 궁극적으로 상대에 대한 앎을, 대화 주제(예: 학습내용)에 대한 앎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상술했듯이 앎은 진정한 호기심에 바탕한 개방적 양식에 따른 공유의 과정이기 때문이다(이와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정은, 2003; 조동일, 2000 참고).

결론적으로 교육(학습)의 과정이자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앎은 앎의 대상과 인식주체 간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으므로(앎은 공유의 과정이다!) ADHD 아동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호 진정한 호기심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본 연구는 ADHD 진단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 작업을 통해 ADHD로 진단받는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에디슨 유전자를 가진 창의적인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가 ADHD와

에디슨 유전자를 구분하는 탐구 작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 누구나 - 같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에디슨 유전자의 근원이 되는 사냥꾼 유전자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모든 인간은 그래서 창의적이지 않은가!). 엄밀한 의미에서 에디슨 유전자와 ADHD는 다르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결과적 차이는 발달과정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는 노출된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 태도, 사고 양식 형성으로 발달된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보편적 이해를 통하지 않는 한 전문가들은 또다시 인간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소외시키는 일을 자행하게 될 위험한 처지에 노출될 것이다. ‘진정한 ADHD를 찾아라’ 내지 ‘진정한 에디슨 유전자를 찾아내자’는 이런 식의 또 다른 분리는 인류의 진보가 아니라 뚜렷한 반反-통합적 사고방식의 일환이며 나아가 ‘우생학적 차원에서의 인간 청소’ 작업의 또 다른 흐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겠다.

첫째, ADHD는 신경학적 결함에 기인하며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적 처치가 필요한 ‘질병’ 혹은 ‘장애’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인간 종의 적응에 기여해온 가치 있는 유전자의 발현이다. 따라서 우리는 ADHD가 가진 창의적 능력(에디슨 유전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I, II-1).

둘째, 인간(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환원주의적 시각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ADHD를 사회구조적 형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ADHD 아동들의 창의성이나 확산적 사고를 생산적으로 수용하고 계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조건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II-2).

셋째, 리탈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마저 리탈린이 ADHD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및 효과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ADHD 아동에 대한 약물치료의 실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엄밀하게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III-1).

넷째, ADHD와 현재 극명한 대립관계에 처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ADHD 아동과 ‘대화하는 척 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상호 진정한 호기심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III-2).

끝으로, 서두에서 “장기간에 걸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아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그 아이를 믿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 사람 정도라도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는데, 본 연구를 통해 바로 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고 또 성실해 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정은(2003). 학문일반론적 논의를 통한 특수교육학의 위상 재조명.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4(3), 1-15.

정은(2008a). 사회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장애아동의 인성발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325-345.

정은(2008b). 장애진단방법론에 있어서 “재역사화(Rehistorisierung)” 개념이 갖는 존재론적 의미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42(4), 27-42.

조동일(2000). *제2판 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Breger, L.(2003).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홍강의, 이영식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Breggin, P.(1998). *Talking back to Ritalin*. Monroe, ME: Common Courage Press.

Caplan, P.(1995). *They say you're crazy: How the world's most powerful psychiatrists decide who's normal*. New York: Addison-Wesley.

Cramond, D.(1995). The coincidenc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creativity.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1(1), 1-17.

Diller, L.(1998). *Running on Ritalin*. New York: Bantam Books.

Freire, P.(2007). *자유의 교육학*(사람대사람 옮김). 서울: 아침이슬.

Giroux, H. A.(2003). *교사는 지성인이다*(이경숙 옮김). 서울: 아침이슬.

Gallagher, H.(1999). Born to explore: The other side of ADD.[<http://www.borntoexplore.com>].

Goleman, D.(2006). *SQ 사회지능*(장석훈 옮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Hartmann, T.(2005). *에디슨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최기철 옮김). 서울: 미래의 창

Honos-Webb, L.(2007).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아동의 재능*(양돈규, 변명숙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Jantzen, W.(1997). Deinstitutionalisierung. *Z. Geistige Behinderung*, 36(4), 358-374.

Jergen, R.(2005). *리틀 몬스터*(조아라, 이순 옮김). 서울: 학지사.

Kirk, S., & Kutchins, H.(1992). *The selling of DSM: The rhetoric of science in psychiatry*. New York: Aldine DeGruyter.

Lee, R. B., & I. Devore (eds.)(1968). *Man the hunter*. Chicago: Aldine-Atherton.

Nylund, D.(2008). *허클베리 핀 길들이기*(김민화 옮김). 서울: 학지사.

Palladino, L. J.(1999). *에디슨 아동, 키워주고 살려주고*(문용린 옮김). 서울: 세종서적.

Rosenberg, M. B.(2007). *비폭력 대화*(케서린 한 옮김). 서울: 에코의 서재.

Sacks, O.(1995). *화성의 인류학자*(이은선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Scholz, A., & Rotenberger, A.(2006). *내 아이에게 틱과 강박증이 있대요*(박진곤 옮김). 서울: 부키.

White, M., & Epston, D.(1990).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New York: W. W. Norton.

Zametkin, A. J., & others.(1993). Brain metabolism in teenagers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333-340.

<http://www.pharmstoday.com>

## An Educational Approach to ADHD

**Cheong, Eun**

Yeungnam University

**Kang, A-Rom**

Yeungnam University

### <Abstrac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renewed and growing interest in ADHD. It has been claimed by some researchers that ADHD is not caused by neurological deficiency. The most interesting and persuasive argument is that ADHD is natural and valuable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Edison-Gene'), rather than the product of deficient gene. In this paper, I will firstly review and discuss these new claims, which provide an opportunity to rethink our perception of ADHD and Eugenics. In so doing, I propose that we need to go beyond biological essentialism in the understanding of ADHD. By employing a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this study also revisits a range of issues surrounding therapeutic intervention and education for ADHD.

This study claims that ADHD is a natural part of human beings, rather than something to be eradicated. It also suggests that educational support for ADHD should be conducted within the frame of huma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Key Words:** ADHD, Eugenic, Edison-Gene, Curiosity, Dialogue

---

논문 접수: 2008. 8. 5    심사 시작: 2008. 8. 16    게재 확정: 2008. 9. 25